



인주마을이야기 Since 2012 제145호

인주마을공동체
파이팅!



2024년 9월호

추석엔 '완주물'서 장볼까

완주 우수 농산물과 상품 판매를 위한 온라인 유통플랫폼 '완주물'이 개장했다. 현재 49개 업체가 입점해 400여개의 상품이 소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완주물의 입점업체와 운영진의 각오를 들어봤다.

사진설명: 9월 4일 완주경제센터 공유스튜디오에서 완주군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이 기획한 완주마을공동체 쇼퍼라이브 방송에 앞서 출연자들이 대표상품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완주군 일자리박람회 ... 8-9P
- 삶의풍경 비비정마을 정도순 ... 10-11P
- 완주의 문화예술인들① ... 12-13P
- 질문이 있는 그림책 프리다 칼로 ... 17P

관련 기사 2~7면



먹텐션 한껏 끌어 올리는 [완주몰]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wanju-mall

완주몰 : wanjumall.com

완주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8월말 정식 오픈, 49개 업체 400여 상품 판매... 이벤트 진행 중

완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과 지역산품을 전국적으로 구매 가능한 온라인 유통플랫폼 '완주몰'이 8월 20일 오픈했다. 완주몰은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 및 유통을 목표로 현재 49개의 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약 400여 개의 상품이 등록돼 있다.

>> 경제 성장의 '페이스메이커'로서 출발

지난 8월 20일 완주경제센터는 오전부터 기대 가득한 분위기로 들떠있었다. 완주군이 완주경제센터를 주축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온 완주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완주몰'의 정식 오픈을 알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완주몰 입점사가 판매하는 제품을 진열하고, 그 밖의 완주로컬푸드 생산품 및 가공품을 활용하여 꾸린 케이터링으로 인해 행사의 의미가 더 빛나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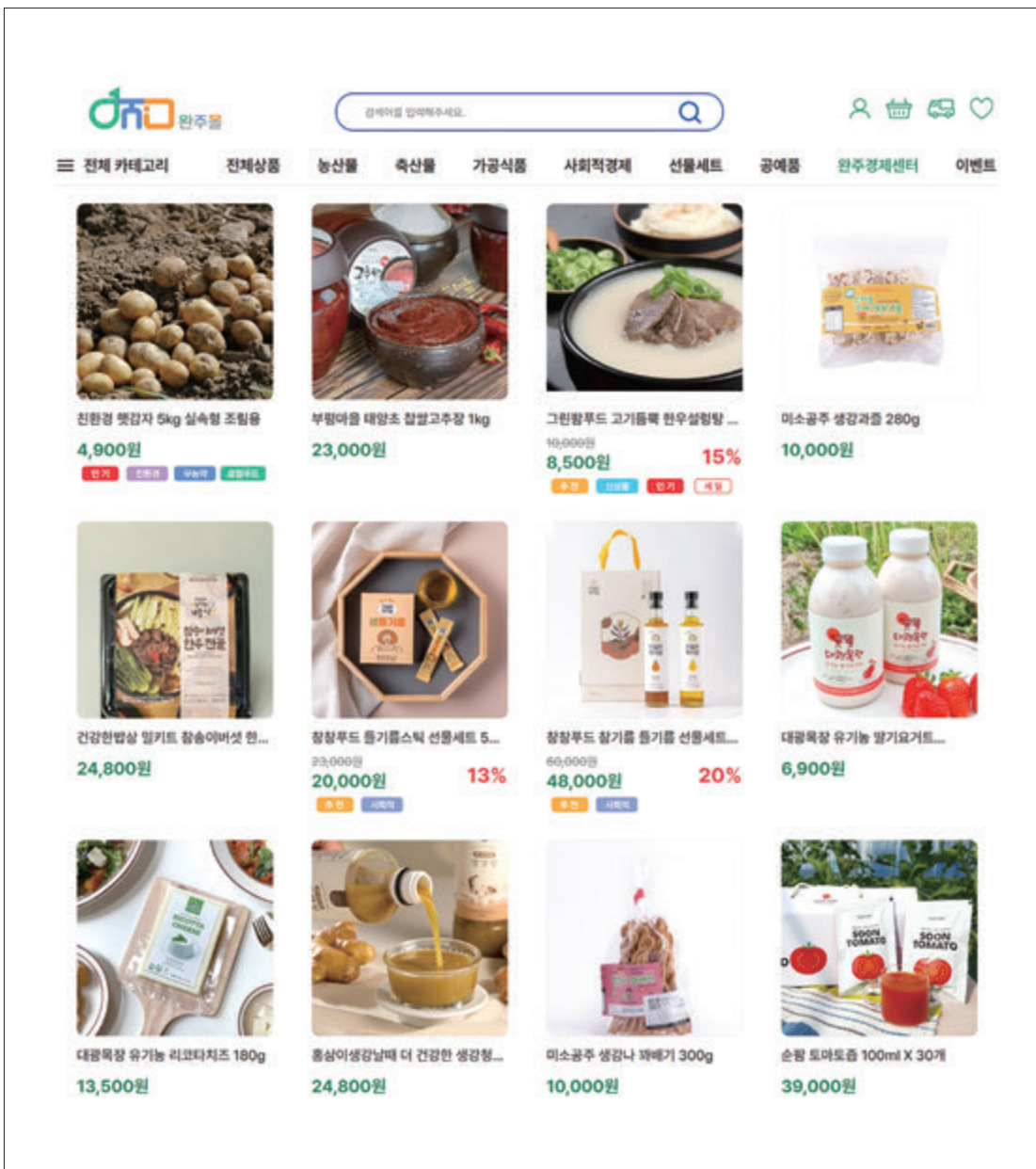
이날 오픈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군의회 의장, 완주몰 입점사 대표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행사를 마친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몰 오픈 기념 2024 사회적경제상품전 N 쇼퍼라이브'에 출연하여 완주의 건강한 사회적경제 먹거리 홍보에 동참했다.

완주몰의 시작은 지난해 "농특산물 유통 판로 확대를 위한 완주형 온라인 판매 플랫폼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이순덕 완주군의원의 자유발언이었다. 이후 그 필요성에 공감한 행정이 적극 추진하여 완주몰을 구축하게 되었다. 입점사 모집 공고 및 설명회에 이어 완주몰은 지난 5월 24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치며 정식 오픈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덕분에 온라인 사이트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소비자의 반응을 점검하여 순탄히 정식 운영의 첫발을 뗄 수 있었다.

한편, 이날 오픈식 이전에는 완주군,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삼육유기농 등 4개 기관이 지역 농산물 및 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유통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각 기관 간의 온라인 유통 채널의 공동 활용, 물류 지원 및 협력,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 상호 정보 교류 및 기술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완주몰이 생산자들의 성공을 돕는 '페이스메이커'로서 보여줄 활약이 기대된다.

>> 완주군 좋은 상품 한 자리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물론 이를 활용해 만든 가공식품까지 한 곳에서 보고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완주몰'은 완주경제센터에서 지난 4월 15일 완주몰 입점사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6일 입점사 모집 설명회를 거쳤다. 모집 대상은 완주군 소재 농업·제조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생산자이며 신청자 심사 과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입점했다. 완주군이 직접 맡아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8월 20일 오픈 기념 라이브 방송에는 한 때 동시 접속자가 3천






완주경제센터 완주물 운영진이 완주물을 ‘완주경제 페이스 메이커’로 가꾸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왼쪽부터 윤선아 주무관, 이보라, 최슬기 완주물 담당, 양다람 주무관, 권민균 주무관, 김상식 완주경제센터장, 육재은 중소기업 담당, 김도희 나눔공간 담당, 이재광 주무관.



완주물 오픈기념 쇼핑라이브. 유희태 완주군수가 출연했다. 사진 제공=완주군

명이 넘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완주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품을 발굴해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상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추석을 맞아 9월 14일까지 완주산 농·축·특산물 및 가공상품 추석 선물세트를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참기름·들기름 세트, 도라지청, 김부각, 떡갈비, 생강청, 설렁탕, 밀키트, 꽃감, 샤인머스켓 등 인기 있는 상품들을 중심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해 판매한다.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 이외에도 완주물은 오픈 기념 혜택인 △신규 회원가입 시 포인트 지급 △친구 추천 포인트 지급 △인기제품 가격 할인행사 △구매왕 총 60만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물 오픈 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명절을 기념하여,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완주의 우수한 상품들을 저렴하게 준비했으니, 많은 소비자분들이 완주물을 통해 완주산 상품을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물 오픈 뒷심 김상식 신임 완주경제센터장

Q 완주물은 어떻게 오픈하게 되었나요?

A 완주물은 완주 지역의 생산자들이 온라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완주군은 소농,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자들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온라인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완주경제센터는 완주물을 통해 지역 생산자들에게 새로운 유통 경로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완주물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
생산자들과
함께 성장할 것
매출목표는
연간 200억
”

Q 완주물의 목표와 전망은?

A 완주물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생산자의 성장을 통해 완주군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완주물은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을 넘어, 완주 생산자들의 성공을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내 소농,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시장 확대를 이루고자 합니다. 앞으로 완주물은 다양한 상품군을 통해 소비자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향후 연간 2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완주물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A 완주물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B2C와 B2B 유통 시스템을 강화하여, 완주 생산자들이 다양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완주물을 통해 생산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포장 및 물류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완주물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비자들을 확대하고, 충성고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판매자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완주 상품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완주물은 완주 생산자들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건강한 먹거리로 장애인 자립까지 **완주물 입점 완주떡메마을**

“온라인 주문 늘어 회사 키웠으면!”



추석을 맞아 주문이 늘어난 모시왕송편을 들고 웃고 있는 완주떡메마을 직원들.

완주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산자들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 구축한 직영 온라인 통합유통플랫폼 '완주물'이 지난 8월 20일 문을 열었다. 현재 완주물에 농업·제조업·서비스업·사회적경제 등 완주군 내 다양한 분야의 기업체들이 입점했다. 그중에는 완주군 사회적경제 분야를 대표하여 우수한 성장지표를 보이는 완주떡메마을도 있다.

» 풍성한 추석 맞이엔 모시송편이 제일

지난 8월 30일 오후 2시 봉동의 완주떡메마을(이하 떡메마을)을 찾았을 때 추석을 앞두고 모시왕송편 생산 막바지에 이른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재료 손질·배합실, 조리 및 세척실, 생산실로 나뉜 각 작업장에서 20여 명의 직원들이 맡은 일을 척척 해나갔다. 가장 바쁜 오전에는 떡 반죽을 빚는 기계가 두 대나 돌아간다. 오후에는 생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두 대 중 하나는 세척하고 나머지 한 대로만 모시왕송편을 만들고 있었다.

보통 직원 서너 명이 함께 기계 한 대를 가동하는데, 주격으로 반죽 정리하기, 떡에 무늬 내기, 찜판에 떡 정리하기 등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금방 한 판이 완성된다. 보기 좋게 만들어진 송편은 잘 찌진 후 급속 냉동되어 택배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



딸기우유떡, 모시왕송편, 초코우유떡, 눈꽃설화세트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입사하여 어느덧 6년 차가 된 박종남(26) 씨는 쌀가루 만드는 것부터 성형까지 전반적인 제조 과정에 능숙하다. 그중에서도 최근 그가 맡은 일은 떡의 모양을 잡는 성형 기계를 다루는 것이다.

종남 씨는 “추석 시즌이라 요즘 주문량이 많아서 바쁘다. 전에는 하루에 한 번만 기계를 가동하던 됐는데 요즘에는 늘어난 출하량을 맞추기 위해 하루에 두 번 정도 기계를 돌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떡이 많이 팔려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웃기도 했다.


완주떡메마을 김태경(49) 사무국장은 “추석을 준비하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긴장하고 있다.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특별생

산 기간에 다들 육체적 피로가 높을 텐데 웃음을 잃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한다”고 말했다.

» 완주물서 '완주 대표상품' 되길 기대

떡메마을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1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신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에 문을 연 완주물에 입점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계속 온라인 판로를 찾기 위해 준비해 왔던 것을 바탕으로 완주물과 수월하게 연계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 김 사무국장은 “그전까지는 주로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연락을 받아 택배를 보내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완주물을 통한 온라인 주문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재 완주물에 2개 제품을 낸 떡메마을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신제품으로 백미(멥쌀), 현미, 7가지 잡곡, 총 세 종류의 쌀 빵튀기를 개발하고 있다. 지역 농가에서 좋은 농산물을 구매하여 최상의 맛을 내는 제품을 만드는 게 떡메마을의 목표다. 끝으로 김 사무국장은 “완주물을 통해 온라인 판로가 보다 활성화되어 떡메마을 상품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완주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물 인기상품 8종

“좋은 완주제품 방방곡곡 입소문나길!”

가격 정보 : 9월 11일 기준

농협회사법인(주)봉동대

입점제품

- 진저요(오리지널/레몬/레드자몽)
- 300ml 13,000원
- 진저요 선물세트
- 300ml x 2개 24,000원
- 300ml x 3개 37,000원



오현명 대표

생강은 어른들만 먹는다고요? 아이, 젊은층도 함께 즐길 수 있죠. 생강은 시원하게 먹어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은 그대로라, 여름철 감기와 냉방병도 예방할 수 있어요. 겨울 한철이 아니라 4계절 내내 생강을 맛있게 즐겨보세요.

창창푸드

입점제품

- 참기름 들기름 선물세트
- 180ml x 2개 47,000원
- 300ml x 2개 60,000원



박정규 대표

고향사랑기부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완주물을 통해 완주지역 제품들을 널리 알려지길 바라고 완주군 기관을 통해 판매되니 소비자들 이 더 신뢰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유)나눔마눔마켓

입점제품

- 미요트 플레인
- 150ml 2,800원



나춘균 대표

안전하게 잘 자리를 잡아 완주물을 통해 완주 지역의 다른 입점사들과 협업해서 판매하는 이벤트도 생기면 좋겠어요. 완주물은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 그에 맞게 보답하고 싶어요.

용진 부평마을

입점제품

- 바로 짜서 바로 담은 참·들기름세트
- 250ml 58,000원
- 120ml 33,000원



이훈구 대표

완주물을 통해 마을공동체 제품이 많이 팔려 어르신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어요. 소비자들 이 믿고 구매해 주시면 우리도 힘을 얻어서 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전국적인 판매망이 구축돼서 좋아요!

마더쿠키

입점제품

- 두부과자 선물세트
- 5입 35,000원
- 쿠키세트 6종
- 33,000원



강정래 대표

HACCP 인증 받기가 정말 어려운데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소비자들 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양심적으로 맛있는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는 완주’ 명성을 이어나가도록 완주물 입점 기준을 엄격하게 유지하면 좋겠어요.

용진 도계마을

입점제품

- 봉서골누룽지
- 150g x 10봉 19,500원
- 150g x 20봉 39,000원



이일구 대표

쌀 소비량이 줄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요. 쌀로 만든 누룽지를 많이 찾아주길 바라요. 좋은 품질에 비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어요. 획기적인 마케팅을 통해 꾸준히 입점업체를 지원해 주세요.

본앤하이리

입점제품

- 단호박식혜 | 전통식혜
- 500ml 3,800원
- 1L 7,000원



정선진 대표

농업인이 키운 단호박, 쌀로 만든 제품이 많이 애용해주세요. 지속적인 홍보 및 기획 등을 통해 생산자들을 위한 기획전, 판촉행사, 컨설팅 등과 연계해 주면 좋겠어요.

농협회사법인 모심(유)

입점제품

- 모심 한우사골곰탕
- 330g x 10개입 30,000원
- 모심 한우우족탕
- 600g x 5개입 35,000원



박미란 대표

모심의 제품은 HACC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제조되어 안전하고 위생적이에요. 한우뼈를 직접 끓여내어 생기는 사골뼈 고유의 성분이 그대로 담겨 있어, 깊고 진한 맛을 자랑합니다. 완주군의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지원도 기대해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전체 카테고리
- 전체상품
- 농산물
- 축산물
- 가공식품
- 사회적경제
- 선물세트
- 공예품
- 완주경제센터
- 이벤트



완주군,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삼육유기농 등 4개 기관이 지역 농산물 및 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유통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각 기관 간의 온라인 유통 채널의 공동 활용, 물류 지원 및 협력,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 상호 정보 교류 및 기술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진 제공=완주군

>> 완주몰 입점 업체

- 완주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건강한밥상 고간
- 완주한우협동조합고산미소육가공센터(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 구암쌀두부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그라스팜
- 주식회사그린팜푸드농업회사법인 대광목장
-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데일리팜
- 완주떡메마을
- 영농조합법인 푸드인완주마더쿠키 만나식품
- 농업회사법인모심유한회사
- 영농조합법인미르
- 미소공주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봉동대
- 농업회사법인봉동생강마을주식회사
- 영농조합법인완주봉상생강조합
- 부평마을영농조합법인
- 비용식품
- 산바람영농조합법인
- 새봄코리아
-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순팜
- 숲쟁이협동조합
- 완주시니어클럽
- 완주로컬가공먹거리생산자협동조합
- 완주군로컬푸드가공식품생산자협동조합
- 완주로컬푸드과실생산자협동조합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 농협회사법인(주)유별난
- 인씨네식품
- 주식회사너머
- 지동이네 쓱쓱부각
- 진짜를맛보다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참드림
- 참살이모악골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창창푸드
- 푸른떡집
- 하리팜
- 한그루영농조합법인
- 홍삼이생강날때
- 화산애빵굿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 농업회사법인(주)화심두부
- 주식회사휴닛
- 봉동들녘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 우정농원(샤인머스켓)
- 서두마을
- 도계마을
- 허브스팜

입점하고 싶으세요?

>> 완주몰 입점 방법

입점사 모집 공고 이후 상시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온라인 쇼핑몰 입점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홈페이지 공고글 입점 신청서 다운로드 후 wanjumall114@gmail.com으로 전자우편 접수 또는 완주경제센터 방문접수하면 된다.

o z m 자음으로 디자인



>> 완주몰의 로고 의미

완주몰의 자음을 간결하게 표현한 디자인으로 상상력을 자극한다. 로컬푸드 1번지와 생산자의 성장을 상징하는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완주군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추석맞이** **쇼핑 LIVE**

좋은 상품-웃음-폭풍댓글에 2시간 순삭

9월 4일 완주경제센터 공유스튜디오에 오전부터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완주군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이 기획한 '추석맞이 완주마을공동체 쇼핑라이브'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날 공유스튜디오에는 완주군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이하 마을지원단)과 촬영팀, 완주군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박종배 위원장, 세 명의 마을기업 대표들이 함께했다.

» 웃음 만발 리허설 시간

생방송이 시작되기 한 시간 전, 이날 방송의 주인공들이 모두 모여 MC 마을지원단 강선미 씨를 중심으로 소품과 진행 동선을 점검했다. 어느 마을인지 알려주는 '완주는 처음이지?' 머리띠를 맞춰 쓴 마을기업 대표들이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묻는 이야기도 오간다.

리허설에서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부평마을 이훈구 대표가 홍보할 상품이 담긴 바구니를 직접 들고 등장하기로 했고, 카메라 앞을 지나쳐 등장한 도계마을 이일구 대표는 생방송 때 카메라 뒤로 돌아서 나오기로 했다. 연습을 마치고 다시 관객석으로 돌아오는 이일구 대표가 "오래 살아야겠다. 어제 죽었으면 오늘 이런 것도 못했겠다"고 농담하자 다들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 하트와 댓글 폭탄, 열렬한 반응 이끈다

생방송 시작 30초 전까지 남은 시간을 세던 선미 씨는 2시가 되자 "완주군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강선미입니다"라는 인사로 방송을 시작했다. 그 전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방송에 방해가 될까봐 소리를 죽이고 지켜봤다.

추석 선물을 준비했냐는 선미 씨의 질문에 "아직 못했다. 당연히 완주마을공동체 상품을 사야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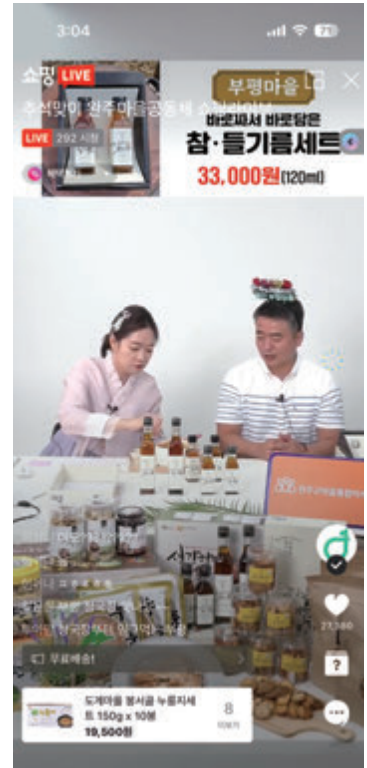
다"는 재치 있는 대답을 들려준 박종배 위원장으로 인해 스튜디오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이어진 도계마을 봉서골누룽지를 홍보하는 시간에 이일구 대표가 누룽지를 맛있게 먹는 특별한 레시피로 '누룽지 라면'을 소개했다. 화면에 보글보글 끓는 누룽지 라면, 맛있게 먹는 MC와 이일구 대표가 잡히자 '엄청 맛있어 보인다', '누룽지 라면 먹어보고 싶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쇼핑라이브가 진행되는 약 2시간 동안 시청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뜨거웠다. 방송 중간중간에 있었던 이벤트 시간마다 시청자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

» 모두가 한마음으로 만든 방송

쇼핑라이브 후반부 서두마을의 편강세트, 생강향기술술세트를 홍보할 때 대본에는 없던 깜짝 게스트가 등장했다. 바로 완주군청 지역활력과 공동체지원팀 오순희 팀장이다. 생강차가 어떤지 묻자 오 팀장은 표정 변화 없이 담백한 어조로 "정말 생강 맛이 난다"고 말해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마을지원단의 최현주 사무국장, 임상하 팀장도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였다. 약 2시간의 방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MC 강선미 씨는 "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함께 지켜봐 주셔서 잘 해낼 수 있었다. 배정된 시간에 비해 상품 종류가 많지는 않아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재미있게 잘 풀어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좋은 품질에 저렴하기까지 한 완주마을공동체 제품으로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완주! 일자리가 밀려온다

2024 완주군 일자리박람회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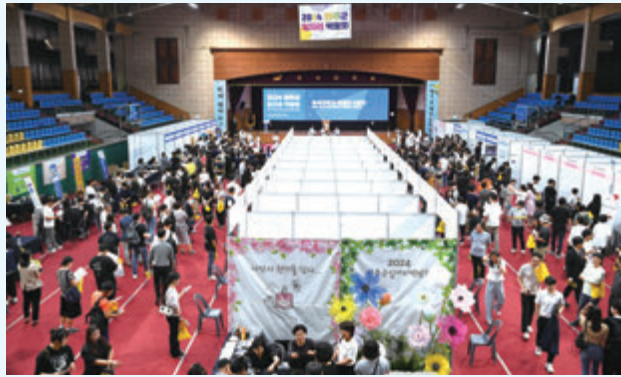
‘완주! 일자리가 밀려온다’를 슬로건으로 한 ‘2024 완주군 일자리 박람회’가 지난 9월 5일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채용설명회와 취업특강, 채용관, 입사상담관 등이 개설돼 구인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취업기회와 채용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입사상담관, 취업컨설팅관, 체험관 등 의료, 사회복지, 식품, 자동차, 금속, 반도체, 통신 등과 관련된 40곳 기업의 부스와 도내 다양한 일자리 기관과 100개 기업이 직·간접으로 참여했다. 이날 1,600명의 구직자가 행사장을 방문했으며 채용설명회,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이 진행되는 상담과 체험 부스마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현장 채용 면접에도 461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구직 열정을 드러냈다. 이 가운데 39명이 합격했으며 이외에도 현재 196명이 2차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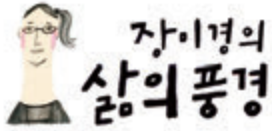


5일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4 완주군일자리박람회 개막식에서 유히태 완주군수를 비롯한 기업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죠”



참여자들이 입사상담관, 취업컨설팅관 등을 찾아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향기테라피 등 체험부스를 찾는 사람들도 많았다.



삼례 비비정마을 정도순 이야기

삼례 끄트머리 언덕빼기 위 노을이 고운 마을. 15년 전쯤 캠코더 한 대 들고 그 마을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을 했었다.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둘러매고 마을에 들어섰던 날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허름한 마을회관 문을 열었는데 좁은 방에 할머니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계셨다. 목소리가 크고 호방한 모습에 기가 좀 죽긴 했지만 이내 깨달았다. 펍 다정하신 분들이라는 걸. 서로가 고생하며 살아온 시절을 지켜본 사람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다정함을 기록하며 잠시 동안 그들과 함께했다.

완주에서 이미 유명한 삼례 비비정마을 이야기다. 2009년~2012년까지 신문화공간조성사업으로 비비정마을 주민들은 많은 일을 해냈다. 좁은 마을회관에 모여 주경야독 공부를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마을 카페와 농가레스토랑이다. 여러 매체에 소개되며 마을 주민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 시절 부녀회장으로 마을 일에 늘 앞장섰던 이가 정도순 씨(1950년생)다. 고생도 이력이 붙었는지 마을 레스토랑 운영하던 일은 그저 재미난 일이었다. 서로의 고생내력을 모두 알고 있는 마을 여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하던 시절이었다. 나는 십년 만에 도순 씨를 다시 만나 마을 일이 아닌 도순 씨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마을로 시집와서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봤어. 비 오는 날도 혼자 일하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이 그러더라고. 너는 억순이, 또순이다. 그게 내 별명이 되었어. 억순이, 또순이, 도순이!”

친정엄마 보란 듯이 살려고 힘들 세월 참아냈지 1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는 살가운 사이도 아니었던만 반가움에 눈물이 슬쩍 맺혔다. 그 사이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당찬 대장 같은 면모는 여전했다. 도순 씨는 어떤 세월을 보냈길래 ‘억순이 또순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

“내 고향은 삼례 하리 용전마을이야. 비비정으로 시집왔지. 한마디로 자유결혼했어요. 우리 친



억순이 또순이 도순이

정마을 사람들은 모래자갈 채취를 했어요. 그 당시는 일거리가 없으니까 동네 처녀들도 모래 채취하는 일을 했어요. 다른 마을서도 우리 마을로 일하러 왔는데 그때 우리 아저씨가 거기 있었던 거지. 모래 채취하다가 눈이 맞은 거지. 그런데 우리 친정에서 엄청 반대를 했어요. 시댁 될 집이 곤란하게 살았거든. 우리 친정은 농사짓고 살만했지. 엄마한테 갖은 수모를 다 겪었어요. 뜨거운 승냥을 나한테 쪽 찌끄러버리기도 했어. 없는 집에 안 보내려고 물불을 안 가리셨던 거 같아. 그래도 나를 결혼시키고 일주일을 제방 타고 비비정까지 몰래 와서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싸우는 소리 들리면 자기 딸 데리고 가려고. 싸움 소리는 커녕 웃음소리만 나서 엄마가 그냥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생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가서 말을 못 했어요. ‘거봐라. 내 말 안 들어서 고생하잖나.’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엄마한테는 시집식구 말을 일절 안 했어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가난한 집으로 시집간 딸이 걱정돼 몰래 딸 집을 오고 갔던 그 어머니가 걸었던 제방길. 몇 해 뒤 도순 씨는 돌 지난 아들을 업고 친정엄마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향했다. 쌀 한 되를 얻기 위해 꾸역꾸역 찾아갔지만 달라는 소리가 차마 나오지 않아 빈손으로 그 길을 걸어올 때, 그때 흘렸던 눈물은 왜 지금도 아프고 생생할까.

“젊었을 때 다른 생각 할 틈이 없었어요. 오로지 돈을 모아서 우리 애들 가르쳐야지. 친정에 보란 듯이 걱정 끼치지 않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만 했어요. 내가 눈치가 빨라서 시집오자마자 생활을 쥐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시집오자마자 한 일은 훌치기야. 내가 처녀 때부터 전주 나가서 훌치기(물들일 천을 물감에 담그기 전에 어떤 부분을 훌치거나 묶어서 그 부분은 물감이 배어들지 못하게 하여 물들이는 방법)를 배워서 집에서 그 일을 했어. 흰 광목천에 땀땀땀 박힌 거를 하나하나 틀에 걸고 실패를 굴려서 훌치는 거야. 그걸 일본말로 오비라고 그러데. 내가 비비정 마을 여자들에게 전수해서 부업으로 훌치기를 했지. 그렇게 번 돈에서 오백 원씩 따로 모아 저축을 했어. 언제든지 싸움하면 집을 나갈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 그때 돈으로 95만 원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애가 또 들어서네. 우리는 그냥 천생연분인가 보다 하고 애들 아빠한테 그 돈을 내놓았어요. 소라도 키워서 애들 학비라도 벌라고. 아니나 다를까 일 년에 한 번씩 송아지를 낳는 거야. 남편은 그것 키우면서 아이들 학비를 번 거지. 그때는 하여튼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정도순 씨의 살아온 역사
1960~70년대 농촌 여성들의 부업으로 성행하던 훌치기
도순씨 친정어머니가 남기신 은가락지
2010년 비비정마을 영상기록하던 때
여전히 마을회관에 모여 끼니를 함께한다



되더라고.”
오남매 낳고 도순 씨의 남편은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에서 노동자로 10년 세월을 보내고 돌아왔다. 막내아들은 날아가는 비행기만 봐도 ‘아빠, 아빠’를 외쳤다. 남편이 해외에서 보내온 돈은 십 원 하나 쓰지 않고 모두 저축을 했다. 여자 혼자 오남매 키우며 살고 있는데 남자 놈 얻으면 괜히 동네에서 말 나올까봐 이를 악 물고 논일, 밭일을 혼자 해냈다.

“우리 엄마가 나 처녀 때 이 집으로 시집 안 보내려고 점을 봤는데 점쟁이 말이 맞는 거 같아. 30살 넘으면 내 밥, 남 주면서 먹고 산다 그러더라고. 남편이 순해서 오히려 나랑 맞았던 거 같아요. 생활은 내가 잡고 굴리면 되니까 아무튼 그럭저럭 일이 잘 풀렸어. 생각한 대로. 논도 사고 땅도 사서 집도 짓고 전북대 앞에서 식당도 크게 하고 원룸사업도 하고 손해는 안 봤으니까 성공한 거지.”

그렇게 비비정농가레스토랑도 순풍에 돛 단 듯 풀렸고 2020년 도순 씨는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밤낮없이 일만 한 도순 씨에게 쉽이 찾아오

나 했지만 큰 해일이 찾아왔다.
“2020년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3기 암 선고를 받은 거지. 수술하고 항암치료할 때 너무 힘들었어. 이런 모습 안 보이고 싶어서 멀리 춘천 사는 딸 집 근처 요양병원에 있었지. 4년 사이에 몸에 칼을 많이 댔어요. 무릎 수술하고 허리 대수술하고. 아프기 전에 일이 잘 풀렸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내가 아프게 되었지. 그래도 내가 아프면 마음은 편해. 자식이 아프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프지만 마음은 편했어. 그래도 어디 전이된 곳 없이 좋아요. 내년 3월 종합검진 받아보고 완치판정 받으면 끝이야.”

도순 씨는 여전히 마을회관에 모여 밥을 나눠 먹는 사이가 있어 안심이다. 함께 늙어가고 먼저 떠나간 이를 기억해 주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이웃과 나눠 먹기 위해 농사를 짓는다.
“예전에 비하면 안 짓는 편이지. 전에는 돌쇠처럼 모으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주는 게 더 마음 편하고 좋아요.”

글·사진=장미경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산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흥흥을 운영한다.

완주의 문화예술인들

01

한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저에는 문화예술이 있다.
문화와 예술이 없는 삶은 삭막할 것이다.
여기 마음의 허기를 채워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지역 문화예술인을 소개한다.



화가이면서 왕성한 사회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정상현 작가가 전주 작업실에서 그림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수채화 화가 **정상현** 씨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
그걸 전하려는 마음

“그림 좋은데? 미술부 안 해볼래?”
이리동중 1학년 미술 시간. 감나무 스케치가 마음에 들었는지 선생님은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교실에 건 뒤 모나미 물감, 수채화 이젤, 쉐프를 주면서 미술부 활동을 권했다. 정상현 작가의 수채화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고등학교 때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이리고 1학년 미술 시간에 정물화를 그렸는데 당시 미술선생님도 그림이 좋이라며 액자에 넣어 교실에 걸어 놓으셨다. 졸업하며 돌려받은 이 그림을 평생 간직해 오고 있다.
정상현 작가는 전북 익산에서 5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지금처럼 화가라 불릴 줄은 몰랐다. 학창시절 스승의 칭찬과 응원이 소년의 재능을 깨웠고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붓을 들게 한다.
“마음의 여백을 채우듯 주위에서 사라져가는 아쉬운 장면들과 아름다운 자연을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는 不如樂之者)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덧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 자연에 순응하고 주위의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써 힐링도 되고 수양도 되는 그림 그리기를 즐기게 된 것 같습니다.”

정상현 작가는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자치행정학회 회장, 전북사생회 회장 등을 역임한 후 현재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전미회 이사, 완주문화재단 이사, 바이올렛아티스트갤러리 관장, 인권교육 강사 등으로 왕성한 예술활동과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종종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도 돕고 있는데 “직업을 선택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잘 할 수 있는 일을 동시에 고려하되, 내적 갈등이 일어나면 잘 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후 좋아하는 일과 병행하는 게 전문화 시대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걸어온 삶이다. **공**

왜 수채화였습니까.

처음에 접한 게 수채화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물감과 물만 있으면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게 좋았어요. 재료 구하기도 수월하고. 유화는 저와 맞지 않았어요. 제가 유독 유화물감의 냄새에 민감한 것 같아요. 수채화도 투명, 불투명, 번짐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림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 보고 꾸준히 그리고 있어요.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동료작가를 찾기도 합니다. 일요화가회라고 있었는데 일요일마다 만나 야외에 나가 같이 그림을 그리는 모임이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하반영 선생께서 당시 지도교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즉 작품활동과 교류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게 고행 같은 거지만 직·간접적 교류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직업이 예술적 성취를 방해하진 않았습니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잘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술가는 밥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니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풍경을 많이 그리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좋아해요. 가만히 자연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는 관객들이 나와 같은 감동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림입니다. 내 그림을 통해 산야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상상하며 확장해 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애착 가는 작품이 있나요.

‘행복한 미소’라는 작품입니다. 2012년에 완성한 작품인데 2016년 개인전 도록에 실려 있습니다. 좋아하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의 결실로 자녀가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렸어요. 그 의미 때문인지 저는 이 작품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누가 팔라고 하는데도 안 팔고 화실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들자면 ‘숲속의 연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별레 먹은 나뭇잎이 모티브인데 사랑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둘 다 2018년에 완성했는데 그 시기에 사랑의 의미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연의 신비로움을 그리다 보면 마음에 사랑이 머무르게 되고 귀중한 생명 같은 작품이 탄생하는데



행복한 미소 40.9×31.8cm Watercolor on paper
정상현 씨가 애착을 갖고 있는 작품이다.



1996년 고1 때 그려 교실에 걸어놓았던 정물화

그림 이야기

고운 구름을 달래 하늘을 열고
열린 하늘을 배경삼아 산과 바다를 화폭에 담는다.

캔버스에는 아름다움이 한아름 배어오고
마음 속에는 그림에 대한 사랑이 머무른다.

그리움과 사랑은 별도 되고 달도 되고
꿈과 희망은 코스모스 가득한 꽃길을 달린다.

열정과 세월이 모여져 귀중한 생명이 탄생된다.
그림에 대한 향그림 들이 마신다.

개인전 '해와 달 그리고 별과 그림, 행복한 미소' 도록 중

이 두 작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시련은 없었습니까.

그림이 잘 그려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시련이라고 할 만한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50대 전에는 그림이 안 될 때마다 나 자신에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더 깊게 배워야 하나 하는 조바심도 났어요. 그런데 전공자나 전업 작가들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많더라고요. 남들이라고 다를 게 없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마음이 단단해진 느낌이랄까.

예술가로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예술가는 어떤 사물, 어떤 풍경이 됐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달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2016년 개인전 때 도록에 '그림 이야기'라는 시를 써 봤어요. 이게 제가 예술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이 궁금합니다.

요새 어린 친구들을 만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는, 그림을 통한 교육기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의 사례가 그 친구들의 진로선택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무엇보다 계속 그려야죠. 그룹전이나 개인전 같은 전시회도 열고요.

본 지면은 예술인발굴기록화사업의 일환으로 완주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진행되었습니다.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열린 907 기후정의행진에서 완주지역 참가자들이 깃발과 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907 기후정의행진 참가한 완주군민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9월 7일 오전 9시 봉동읍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907 기후정의행진’ 참석을 위해 모인 완주군민 85명은 이날 상경을 앞두고 간단한 발대식을 가졌다. 부모와 함께 행사에 참석한 봉성초등학교 고은찬, 은하 남매는 “더 이상 지구가 녹고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면서 “아픈 지구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참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완주기후위기 박일진 대표는 “지금 기후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서 “화석연료 중심사회를 바꾸고 인간의 무한욕망을 절제하는 세상으로 바꾸어야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엉망인 한국정부와 세계 각국 정부를 바꾸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서 기후정의행진에 임하는 결의를 밝혔다.

완주 참가팀은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상경, 서울 강남대로에서 열린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 전국에서 모인 2만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했다. 이날 행진은 기후재난의 심각성을 알리며, “쏟아지는 폭우와 녹아 내리는 폭염”이라는 선언문으로 시작되었다. 올해 여름에는 역대 최고 평균 기온을 기록하며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기후정의행진은 매년 유엔총회를 앞두고 열리는 국제적 행사로,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 올해는 615개 단체가 참여하며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부산, 제주 등에서도 동시에 행사가 진행됐다. 🌱



'907 기후정의행진' 참석을 위해 모인 완주군민 85 명이 9월 7일 오전 9시 봉동읍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고 외치고 있다.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열린 907 기후정의행진에서 참가자들이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기후정의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의미다.



위부터 시계방향으로_ 겨울 동상꽃감 사러갔을 때, 마늘 사러 갔을 때, 수국이 예쁜 소양의 두베 카페, 어탕이 맛있는 동락기든 앞 강변, 상관마을 편백숲 평상에서.



명예군민 여위숙 씨가 전하는

봄여름가을겨울 완주의 매력

2010년 국립중앙도서관 근무 당시 여위숙 씨는 고산도서관과 함께 고산자연휴양림을 찾은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휴가철 숲속 문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완주에 처음으로 방문했다. 그때 서진순 사서(현 도서관사업소장)를 비롯한 완주군 공공도서관 직원들과 독서회 회원들의 열정에 크게 감동했다고 한다. 완주라는 지명을 처음 들어봤을 정도로 잘 모르는 곳에서 그는 따뜻하게 맞아준 사서들의 정, 함께 먹은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통해 완주를 몸소 익혔다. 이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으로서 여위숙 씨는 공공도서관 대상 사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완주에 계속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곳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다.

완주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보는 사람은 없다고, 위숙 씨는 퇴직 후 지인들과 함께 계절마다 완주를 즐겨 찾았다. 계절별로 마늘, 꽃감 등을 사러 가는 일은 연례행사가 되었고, 매해 김장도 완주에서 담그고 있다. 동락기든에서 먹는 뜨끈한 어탕, 정겨운 고산의 이발소에서 머리 다듬는 일 등 위숙 씨의 지인들이 완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이다.

위숙 씨는 “매번 다른 이유로 찾는 완주 여행이지만 항상 마무리는 용진로컬푸드매장에 들러 제철 신선한 농산물로 승용차 트렁크를 가득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말로 공직 은퇴 후 위숙 씨는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서 완주군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탰다. 지난 4월 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그는 이제 업무로 도서관을 찾지는 않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전히 정든 사람들과 완주를 찾고 도서관 직원들과의 우정도 계속 쌓고 있다.

“볼거리 많고, 먹거리 훌륭하고, 사람 냄새 좋은 완주를 계속 찾을 것 같다”며 웃은 위숙 씨는 언제나 지인들에게 완주를 ‘힐링의 여행지’로 적극 추천하고 있다.

여위숙 씨 추천 완주 사계절 즐길 거리

SPRING

- 소양면 벚꽃길을 따라 대야호에 이르는 드라이브 길에 만나는 눈부신 윤슬
- 비구니 스님들의 정갈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위봉사와 위봉폭포
- 다슬기 숯밥이 맛있는 ‘기양초’와 사계절 포근한 밤을 보낼 수 있는 아원, 소양고택

SUMMER

- 평상에 누워 두런두런 담소 나눌 수 있는 상관마을 편백나무 숲
- 수국 만발한 책방이 있는 소양의 카페 두베
- 돼지갈비가 맛있는 ‘자연을 담은 사람들’에서 저녁식사 후 둘러보는 송광사의 연꽃

AUTUMN

- 대둔산의 단풍, 위봉산성 둘레길 산책 후 들르는 와일드푸드 축제
- 불명산 숲길 계곡을 따라 올라가 만나는 고즈넉한 화암사와 구이저수지 둘레길

WINTER

- 동산면의 집집마다 탐스럽게 매달려 익어가는 달콤한 꽃감
- 11월 무렵 가장 품질이 좋다는 햇생강으로 만드는 편강

질문이 있는 이달의 그림책

키워드 - 프리다 칼로, 삶, 고통, 예술, 희망

유이 모랄레스 지음, 유소영 역 | 담푸스 | 40쪽 | 2015 | 1만3천원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의 화가로, 독특한 스타일의 자화상으로 유명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겪은 고통과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강렬한 색상과 상징적인 이미지로 자신만의 특별한 예술세계를 만든 화가입니다.

유이 모랄레스 작가는 실물 인형, 아크릴 물감, 디지털 작업을 이용하여 프리다 칼로의 심리 상태를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처럼 독특하고 강렬하며, 실제 프리다 칼로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따와 그림책에 녹여내기도 했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마저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 있음을 느낍니다.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에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갑니다. 프리다 칼로처럼 삶을 살아내는 각자의 희망을 찾아 고민하고 방향하며 살아 있음을 느끼길 바랍니다.

제나 알카야트 글, 니나 코스포드 그림 | 이종 | 256쪽 | 2016 | 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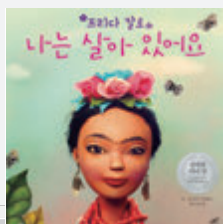
‘작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고 충실하게 진실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 감사의 글 중 첫 문장입니다. 작가의 다짐처럼 프리다 칼로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삶이 있는 그대로 책에 담겨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거부하듯 그녀의 운명은 평탄하게 오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항상 그녀를 일으켜 세운 건 그림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어떤 평가를 내리든 내 그림이 가장 솔직한 나이다.’ 그림에 대한 그녀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의 삶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VIVA LA VIDA’ (인생 만세) 마지막 작품 ‘수박 정물화’에 남긴 글처럼 자신의 인생을 사랑한 프리다 칼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살아 있어요.’ 그림책을 읽고 궁금증이 생겼다면 ‘프리다 칼로’를 읽어보길 바랍니다. 어쩌면 정답을 찾을 수도 있을테니까요.

프리다 칼로
나는 살아 있어요



프리다 칼로



베르:봄 책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1길 13 | 010-2074-5340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서울 2024 웰니스페어에서 완주 전통주 선보여

완주문화재단 X 완주DMO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동안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일원에서 '2024 웰니스페어'가 열렸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유관기관 및 협회 등 34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 완주문화재단을 포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8개 기관이 공동 마케팅의 일환으로 참여했다.

완주문화재단은 완주DMO와 협업하여 '완주에서 완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완주의 특색이 담긴 가공식품 및 전통주를 선보였다. 콜라보 부스는 전통주 시음 외에도 완주DMO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면 무료로 막걸리 한 병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행사 첫날 오전 중에 준비한 막걸리 300병이 모두 배포되었을 정도로 부스에 대한 방문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완주문화재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 완주의 멋과 향취를 많이 알아주시면 좋겠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완주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일원에서 열린 '2024 웰니스페어'의 완주 콜라보 부스인 '완주에서 완주'.

양생원과 일 년 열두 달



#윤대라 #artistDERA #올랄라선녀마마

윤대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고양이 양생원, 멍멍이 견재, 꼬꼬닭 함께 좌충우돌 우당탕탕 완주살이 11년 차.

<https://www.instagram.com/artist.dera/>



제대로 살고 싶을 때 듣는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9) 빌 더글라스의 [이니스프리 호수 섬]

나 이제 일어나 가리라, 이니스프리로 가리라.
거기에 나뭇가지와 진흙으로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아홉 이랑 콩밭을 일구며, 꿀벌들을 위한 집도 하나 마련하리라,
그리하여 꿀벌 소리 요란한 그 숲속에서 홀로 살아가리라.

그곳에선 얼마간 평화를 얻으리라, 평화는 천천히
아침장막으로부터 귀뚜라기가 우는 저녁까지 내리고 있으리니,
그곳에선 밤은 은은한 빛으로 가득하고, 한낮은 자주빛으로 타오르리라,
그리고 저녁엔 흥방울새 노래소리 그득하리라.

나 이제 일어나 가리라, 밤이나 낮이나
호숫가에서 나지막이 찰랑대는 물결소리 항상 들려오고 있으니,
철로 위를 달리거나 회색 포장도로 위에 있을 때에도
그 소리 가슴 속 깊이 듣고 있었으니.

에이즈(William Butler Yeats, 1865-1939)의 유명한 [이니스프리 호수 섬]("The Lake Isle of Innisfree") 시에 빌 더글라스(Bill Douglas)가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을 떨치고 한적한 자연에 묻혀 홀로 살고 싶은 마음, 그 떨쳐버릴 수 없는 소망을 담은 전원서정시의 정서를 제대로 살려주고 있는 치유의 명상음악입니다.

시인 자신의 설명에 의하면, 이런 전원적 삶에 대한 동경의 마음은 어린 십대 때부터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런던 한복판을 걷다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듣거나 쇼윈도에 마련된 작은 새 장식만 보아도 향수에 젖어 이 호수를 떠올리고는 이내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이니스프리는 아일랜드 슬리고(Sligo) 현의 러프 길(Lough Gill) 호수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이 섬에서 지낸 적이 있는데, 그 시절 아버지는 소로(Henry David Thoreau, 1817-62)의 [월든](Walden)에 나오는 구절들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시인은 그것에 감명을 받아 언젠가 "이니스프리라 불리는 작은 섬 오두막집에서" 살아갈 계획을 하게 됩니다.

소로는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나름의 독특한 삶에 충실했던 미국의 대표적인 초월주의(Transcendentalism) 사상가입니다. 그는 국가주의에 의한 것이든 자본주의의 물질문명에 의한 것이든, 맹목적인 대중추수 경향에 저항했습니다. 미국이 일으킨 멕시코 전쟁에 반대하여 납세를 거부하기도 했던 그의 비폭력 저항운동 정신은 간디(Mahatma Gandhi, 1869-1948)나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1929-68) 목사 등에게 고스란히 전수됩니다. 예이츠가 감동했던 구절은 아마 [월든]의 이런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숲에 간 것은 삶을 철두철미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생의 근본적인 사실들과 맞대하고 싶었던 것이다... 삶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삶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념을 감내하지도 않을 것이다. 심오하게 살아가며 삶의 모든 골수를 흠뻑 빨아들이고 싶은 것이다.

이 곡은 2001년 음반 『아침이라 불리는 곳』(A Place Called Morning)에 실려 있습니다. 아르



QR을 스캔해보세요.
음악이 재생됩니다.

스 노바 합창단(The Ars Nova Singers)의 연주로 새롭게 녹음한 것입니다. 레퀴엠의 입당송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이번 연주에서는 화성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작곡가이자 피아노, 바순 연주자이기도 한 더글라스 음악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격조 높은 음악성과 편안함을 선사하는 명상음악의 정서를 들 수 있습니다. 그의 음악에는 숲, 바람, 비, 달 등 자연을 소재로 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목소리를 더하여 그 포근한 조화를 통해 어지러움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 귀와 마음을 달래주곤 합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화성의 아름다움을 통해 전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인류 공멸의 광기가 온 세상에 만연합니다. 바깥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 안도 분노와 증오, 독선의 외침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숲을 자주 찾았을 일입니다. 스스로를 챙기고 추스르기 위해. 그렇게 자기 나름의 이니스프리나 월든을 하나 키워갈 일입니다. 그럴 때 이런 음악이 좋은 반려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켜온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 고향 원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정신건강상담 | 치료비지원 | 자살관련 상담 | 자살유족지원 | 중독관리

원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 063-262-3066 자살예방상담전화 ☎ 109

원주군 | 원주대학교 | 원주대학교병원 | 원주대학교병원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삶을 변화시킬까?



[33]

유승이는 전통주를 빚고 즐기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가양주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다.



영화 「어나더 라운드」
(2022, 토마스 빈터베르크 감독, 메즈 미켈슨 주연)

음주운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혈액 100ml속에 알코올 0.03g이 있다는 뜻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친구들과 맥주 1~2잔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유쾌해지는 정도인데 개인차에 따라 느끼는 정도는 다르다. 술을 마시면 섭취하게 되는 에탄올은 위와 소장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90% 이상 간에서 분해된다. 간에 존재하는 알코올탈수소효소가 에탄올을 산화시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꾼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홍조, 어지러움, 구토 등을 유발하는데, 과도한 음주 또는 지속적인 음주로 간이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정량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 몸을 유지해주는 주요한 기능을 곳곳에서 교란시키며 중독으로 이어지게 하는 1급 발암물질의 본성을 드러낸다.

덴마크 영화 '어나더 라운드'는 시종일관 술을 마신다. 걱정될 정도로 술 마시는 장면이 영화 내

내 등장한다. 칼스버그 맥주 광고모델로 잘 알려진 배우 메즈 미켈슨이 주인공인 영화다. 역사교사인 마르틴(메즈 미켈슨), 철학교사 니콜라이, 음악 교사 피터, 체육 교사 톰뮈는 40대를 넘기며 찾아온 일상의 무기력과 공허함을 공통적으로 앓고 있다. 특히 마르틴은 성적에 민감한 고교 졸업반 역사수업에서 재미없는 수업 진행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적으로 항의를 받을 정도다. 어느 날 니콜라이가 자신들이 처한 즐겁지 않은 생활의 원인을 한 이론에서 찾아낸다. '모든 인간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를 갖고 태어나는데, 이 결핍된 농도를 유지하면 창의적이고 용감해진다'는 한 철학자의 논리(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를 적용해 보자고 제안한다.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사람은 마르틴. 수업 전에 가방 속에 든 위스키를 화장실에서 한 모금 마시고 수업을 시작한다.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활기와 웃음, 열정

이 느껴지는 선생님의 태도에 아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전에 없던 다양한 수업 방식을 적용하는 마르틴의 수업을 본 다른 친구들도 이 실험에 동참하기 시작한다. 모두의 수업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이들은 점차 알코올 농도를 2단계, 3단계로 올려간다. 상황의 결말은 상상하는 그대로다. 심각한 음주는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각자의 생활은 처음보다 더 엉망으로 돌아간다. 아내들은 집을 나가고, 학교에서 제명되고, 싸우고, 길바닥에 쓰러져 잠들고... 우울감을 견디지 못한 체육교사 톰뮈는 유일한 친구였던 병든 개와 함께 바다에 빠져 죽는다. 술을 통해 잠시 활기와 열정을 찾아가는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음주실험을 유쾌하게 보다가도 삶의 우울과 공허함을 해결할 방법으로 술을 마시는 선택은 적절하지 않았음을 어느새 공감하게 된다. 다소 엉뚱한 그들의 선택을 통해 잃어버린 삶의 열정과 활기를 되찾고 싶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영화는 질문을 던진다. 평소의 내가 아닌 듯 활기차고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기운은 잠시 작은 소용돌이로 일었다가 스스로 소멸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거대한 태풍으로 키워지면 몸에도 마음에도 더욱 큰 폐허로 남아 켜켜이 쌓이게 된다. '술을 마신다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술을/ 적당히/ 마시자'라는 나의 주장은 다소 힘이 없는데, '적당히'라는 애매한 뜻의 단어가 늘 문제다.

마을소식

“완주로 이사오고 싶어요”

완주미래행복센터, 아동친화체험단 운영

완주미래행복센터에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 2일간 완주군으로 이주하고 싶은 가족 2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친화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동친화체험단'은 타 시군의 학령기 부모·자녀 세대를 완주군으로 유입시키고자 완주군의 다양한 아동친화·돌봄 공간, 사업 등을 소개하고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탐방하는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날 참여한 가족은 완주군의 아동친화 정책을 소개받고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 청소년센터 고래, 순가락 공동육아 현장을 탐방했다. 또한, 용진 두억마을 한옥 체험을 통해 가족과 힐링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주시에서 온 박영미(46) 씨는 “완주군의 아동친화 정책에 놀랐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완주로의 이주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907 기후정의행진

농/촌/별/곡



차 남 호

다시 서울 가는 전세버스에 몸을 실었다. 지난해에 이어 일 년 만이다. <907 기후정의행진> 완주 지역 참가단 85명의 한 사람으로. 지난해보다 참가자가 많아 버스도 두 대에서 세 대로 늘었다고 한다.

지난 2019년 첫발을 댄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전국의 시민이 한 곳에 모여 성장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를 혁파하고 기후불평등 해소와 거대한 전환의 흐름을 만들려는 자발적 운동이다. 올해는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세워 서울 강남대로에서 열렸다. 3만을 헤아리는 이들이 저마다 자신의 절박한 호소를 쏟아냈다.

본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으리으리한 고층빌딩이 늘어난 강남대로-테헤란로를 행진하며, 그 심각성에 견주어 무심하고, 무기력한 기후위기 대응

에 각성을 호소하고, 급진적인 체제-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완주지역 참가단의 경우 서른 명 남짓한 어린이들의 참가가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박자에 맞춰 호루라기를 불어대며 행진대열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웅어리진 울화와 답답함을 이렇게라도 풀어내지 않으면 다들 숨이 막혀 죽을 노릇이었을 게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기후위기는 이미 파국의 임계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보여주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슷한 재해가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이제는 ‘이번’이라 부르기도 어려운 자연스런 현상으로 굳어지는 듯해 걱정이다.

올해 여름은 더욱 끔찍했다. 장마전선이 오래도록 머물면서 물폭탄을 쏟아 부어댔다. ‘폭우’로도 모자라 그 앞에 ‘극한’을 덧붙여야 하는 어마어마한 물난리에 이곳저곳이 잠기고 쓸려나갔다. 완주군만 해도 운주면 일대를 홍수와 산사태가 휩쓰는 통에 이재민이 발생하고 오랫동안 복구에 매달려야 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어디나 ‘역대급 사태’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장마가 지나고 나자 이번엔 폭염이 뒤를 이었다. 아침나절부터 섭씨 30도를 웃돌아 온종일 불볕더위가 이어졌다. 벼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더위가 무서워 논배미에 나가볼 엄두를 내기 어려웠으니 오죽했을까. 게다가 한 달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그동안은 어찌어찌 버텼지만 이제는 에어컨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감에 가슴 한 켠이 무너져내리는 느낌. 이 모두가 파국의 임계점을 지나고 있다는 명백한 예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9월 중순에 접어드는 지금까지도 한낮 기온이 섭씨 35도 가까이 치솟을 만큼 더위가 식지 않고 있다. 계절이 바뀌어 선들바람이 불고 살갗이 더위를 잊을 만하면 기후를 둘러싼 사람들의 위기의식 또한 식게 마련이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은 늦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즈음에, 땀별 아래서 열린 탓인지 위기의식에 불타는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난 듯하다.

오늘 행진에 나선 이들은 강남대로를 따라 늘어난 거대한 빌딩들의 ‘주인’이 바로 기후위기의 ‘주범’임을 새삼 떠올렸을 게다. ‘개발’과 ‘성장’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저들의 ‘이윤을 향한 탐욕’이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권력과 더불어 파국을 앞당기고 있음을. 그러니 저 ‘기후악당’들을 물리치고 파국을 막으려는 열망은 ‘정의’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찬바람이 불고 추위가 찾아오더라도 그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울러 오늘 행진에 나선 이들의 ‘호들갑’에 자극을 받아 더 많은 시민이 기후정의의 세우는 길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비봉 염맘마을

완주군의회에서는

“필리핀에 완주상품 널리 알리고 싶어”

필리핀 마닐라 코리아타운협회 간담회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9월 5일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코리아타운 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2018년 준비위원회를 거쳐 만들어진 코리아타운 협회는 최초 ‘상인조합’에서 마닐라시 조례로 ‘코리아타운협회’로 지정된 단체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과 지역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마닐라 한인사회를 대표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 하나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순덕 운영위원장,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 유이수 산업건설위원 등과 코리아타운협회 회장단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완주의 관광 상품 홍보와 우수특산물을 소개하는 등 완주군의 우수한 농산물이 마닐라 코리아타운협회를 통해 마닐라 지역에 유통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순덕 의원은 “마닐라 현지 교민들이 모여 구성된 코리안 타운 내에서 우리 완주군의 상품도 판매될 수 있는 방안과 완주군과 코리아타운협회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완주군의 관광 상품도 홍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 발 행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발 행 인 이용규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나들목로 338-33
- 대 표 전 화 063-291-8448 • 팩 스 063-261-8448
- 홈 페 이 지 www.wandookong.kr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완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심심한 완주

모이자! 모여!

더위에 지쳤던 여름을 지나 활기를 되찾아 가는 가을의 문턱 9월. 건강에 유의하며 완주군 곳곳에 다양한 소식과 진행되는 프로그램 일정을 함께 해 보자. 상기 일정은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심한 완주 사람들 고민하지 말고 여기로 모여라!

고산 청년거점공간 '청춘 방앗간'

방앗간식탁_고산에서 혼밥 어때?

소진된 마음에 에너지를 채우고,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나만의 쉼 보내는 시간. 방앗간에 모여 간단하게 식사 후 책 읽으면서 쉬고 싶은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9월 12/19/26일 매주 (목) 오전 11시 30분 오후~1시 30분
참가비: 회당 3,000원 *간단한 식사 및 커피 제공

수리수리 그릇수리!

지난번 우산 수리에 이어 이번에는 그릇 수리를 하는 시간이다. 금이나 옷으로 그릇을 고치는 '킨츠키'를 이용해 사기그릇을 수리해 보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9월 21일 (토) 오후 2시

모집인원: 8명

참가비: 10,000원 *수리 키트 제공

준비물: 이 나간 그릇, 깨진 그릇 각 1개 (사기그릇만 가능)

추석맞이 보드게임 왕 선발전!

추석을 맞아 청춘방앗간에서 보드게임 '스플렌더' 왕 선발전을 진행한다. 1등부터 3등까지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9월 14일 (토) 오후 2시

네 가지 세계로!

에니어그램부터 강점 혁명, 별자리, 명리학까지 네 가지 세계를 활용하여 나의 성격과 특성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해 내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싶은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9월 24일~10월 22일까지 총 9회

(매주 화, 금) 오후 7시~9시

보증금: 10,000원 *80% 참석 시 환급

어반스케치

방앗간에 용기종기 모여 기억하고 싶은 장소, 가보고 싶은 곳을 그림으로 그려본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9월 18/25일 (매주 수) 오후 7시

수요 음악감상실

한국 대중음악 명반100 앨범리뷰, 배철수 음악캠프 20년 그리고 100장의 음반, 책을 길잡이 삼아 함께 모여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진행정보: 9월 18/25일 (매주 수) 오후 7시

탐조 책 모임

완주탐조대는 '새'를 알아 보는 시간이다. 얼굴을 알지만 이름을 모르거나, 소리는 들어봤지만 이름을 모르는 새들을 함께 모여 관찰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9월 14/21/28일 (목) (격주 토) 오후 4시

청춘방앗간 멤버십 이벤트



기간: ~재고 소진 시까지

대상: 청춘방앗간 멤버십 '짹짹' 전원

내용: 방문하시는 모든 짹짹이분들께 신규 굿즈 증정!

접수방법: 인스타그램 신청링크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김밥천국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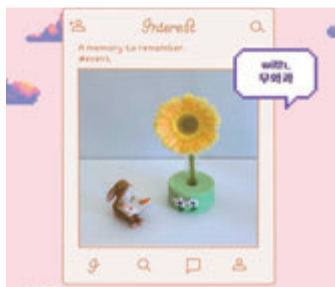
문의: 063-262-280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월,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cheongchon

삼례 청년문화공간 '완충지대'

한 송이 화병 만들기



한 송이 꽃을 꽂을 수 있는 특별한 나만의 화병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9월 26일 (목) 오후 7시

신청기간: 9월 14일 (토) 오후 9시

모집인원: 10명

참가비: 10,000원

일본 회화 소모임

완충지대에서 나카무라미코 이끄미와 함께 일본어를 배운다. 소모임에 모여 이야기 하며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9월 24일 (화) 오후 7시

일본 요리 소모임

완충지대 공유주방에서 일본음식 냉동화면을 만들어 본다.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서둘러 참여하자!

진행정보: 9월 21일 (토) 오후 5시

참가비: 5,000원

'한권' 독서모임

9월의 주제는 '영화'로 독서 모임이 진행된다.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는 시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서둘러 참여하자.

진행정보: 9월 19일 (목) 오후 5시

주소: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382 (신아빌딩 4층)

문의: 070-4113-777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월,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wanchungjidae

참가신청: 인스타그램 메시지 또는 완충지대 오픈카톡

창작과 공유, 소통의 공간 '완주미디어센터'

+ "9월 가을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을 꿈씨네와 함께"

시골극장 꿈씨네 9월 상영 시간표를 공개한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즐기 좋은 <토요 극장>과 영화를 깊이 있게 해 줄 <저녁극장>이 상영될 예정이다.

*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9월 14일 (토) 오후 2시	신과함께: 죄와 벌	판타지	12세 관람가
9월 21일 (토) 오후 2시	신과함께: 인과연	판타지, 드라마	12세 관람가
9월 28일 (토) 오후 2시	마브카: 숲의 노래	애니메이션	전체 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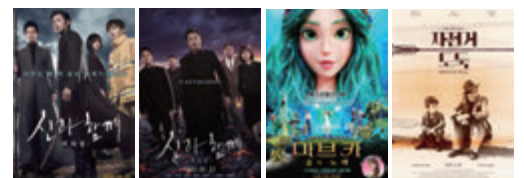
* 영화를 깊이있게 <저녁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9월 24일 (화) 오후 7시	자전거 도둑	드라마	12세 관람가

문의: 063-262-1895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귀농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추가모집

용진읍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개소당 660㎡ 이내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원한다. 단, 사업대상은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사람이어야 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오는 23일까지 추가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용진읍 산업경제팀 (063-290-34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기간: 9월 23일 (월) 까지

문의 및 접수: 063-290-3475 용진읍 산업경제팀

2025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농업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팜 패키지를 지원한다. 기반조성, 온실신축, 냉난방시설 같은 하드웨어부터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 및 융화교육 등의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제공된다. 신청기간은 9월 24일까지이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및 필요 자료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완주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지원대상

- 만 18~45세 미만 청년농업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 전북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예정)자 중 타 시도 출신
- 시군 우수 청년농업인(스마트팜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 신청기간: 9월 24일(화) 까지
- 신청방법: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자료 제출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문화생활 즐기자!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가을저녁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오는 20일 금요일에는 부산가야금연주단이 들려주는 부산 동백섬에 대한 설화를, 28일 토요일에는 국악관현악단 코라이즌이 선보이는 풍부한 선율을 경험할 수 있다. 자세한 공연정보와 예매를 원한다면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063-291-7245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 삼례읍 삼봉로 215번지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문의: 063-291-7245



영유아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완주군 중앙도서관이 완주군의 2021년~2022년 출생 어린이, 2023년~2024년 출생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꾸러미를 나눠준다. 사전 신청 없이 중앙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에서 각 40명씩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책꾸러미를 원하는 보호자는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완주군 도서관에 회원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기간: 9월 10일(화) ~ 11월 10일(일)
- 선착순 마감 / 점심시간 및 공휴일 미운영
대상: 주소지가 완주군인 영유아 및 어린이, 완주군 도서관 회원
문의: 063-290-2655~6



공취팔취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참가자 모집

공취팔취도서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여 '천연 선크림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성인 10명을 모집한다.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완주군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공취팔취 게시판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모집은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사람은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모집기간: 모집인원 마감될 때까지
문의: 063-290-2659



아동권리영화 작품 공모전



완주군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 2024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영화제 '아동권리영화 작품공모전'을 연다. 2024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영화제는 완주군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운영하는 사업이다.

완주군이 전국 102개 아동친화도시를 대표해 아동 및 관계자 등을 완주로 초청해 영화제를 연다. 대상은 아동권리 증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가족,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아동권리영화 작품공모전은 지정주제인 미디어, 기후위기, 마음건강과 자유주제인 아동친화도시 관련 주제를 선정해 오는 9월 30일까지 출품하면 된다.

작품 길이는 아동·청소년, 가족 분야는 10분 미만, 솜뽕 분야는 1분 내외 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출품이 가능하다. 해당 작품들은 오는 11월 2일 완주군청 일원에서 개최될 아동권리영화제에서 출품되며, 출품자 상영 및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블로그를 참조하면 된다.

블로그: blog.naver.com/wanjujc



“반려견, 사지 말고 입양해요”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 밤밤이(♀)
노란 털이 매력적인 밤밤이!

- * 직장인 봉사자들이 홍보와 상담 진행 중으로 입양 상담 외 구조 등 기타 문의는 받지 않고 있다.
- 입양을 기다리는 더 많은 아이들이 보고 싶다면?
인스타그램 @wanju_star (별빛유기동물지킴이)

체중: 약 13kg
나이: 1~2살 추정
건강상태: 심장사상충 예방약 매달 복용 중

밤밤이는 2023년에 보호소에 입소해 지내고 있다. 밝은 성격으로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다가가는 방법을 몰라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화, 산책 훈련이 필요한 아이이다. 이런 밤밤이에게 좋은 울타리를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사랑을 베풀어 줄 가족이 절실히 필요하다.

입양 신청 방법: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 접속하여 신청



★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이므로 신중히 고민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



아코 AKO

2024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영화제



아동친화시민이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
삶 - 꿈 - 권리

아동권리영화 작품 공모전

2024.8.1. **목** — 9.30. **월**

참가자격 아동권리 증진에 관심 있는 ① 아동·청소년 ② 가족 ③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개인/팀 참여가능, 1인(팀) 1작품 출품

공모주제 ① 지정주제 : 미디어, 기후위기, 마음건강
② 자유주제 : 아동친화도시
※ 작품길이 : (아동·청소년, 가족) 10분 미만, (누구나) 1분 내외 숏폼

시상내역

대 상(3)	아동·청소년(1팀) 300만원 가족(1팀) 300만원 숏폼(1팀) 100만원
최우수상(3)	아동·청소년(1팀) 200만원 가족(1팀) 200만원 숏폼(1팀) 50만원
우 수 상(9)	아동·청소년(3팀) 100만원 가족(3팀) 100만원 숏폼(3팀) 30만원
장 려 상(15)	아동·청소년(5팀) 50만원 가족(5팀) 50만원 숏폼(5팀) 20만원

문의 | 완주군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 ☎ 063~290~4291~2 / 이메일 his21@korea.kr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wanjucfc>

※ 아동권리영화제 개최(시상식 포함) : 2024. 11. 2.(토) 완주군청 일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완주군
WANJUGUN